제 3 편 지명유래(地名由來)

제 1 장 수원의 옛지명

최근 한반도에서도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적지 않게 발굴되고 있다.

금강 상류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굴 된 것을 비롯하여 전곡리에서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손도끼(手斧)를 비롯한 많은 유물이 나왔으며, 충북 청원 및 제천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만년 전 것으로 보이는 동물의 뼈가 발견되어 학계를 놀라게 하였다.

또 경기도 여주에서는 최근 탄화(炭化)된 쌀이 발견되어 한반도에서의 농경의 역사를 실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반도에서 인류가 살기 시작하였던 역사는 필경 수 십만년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절의 소상한 역사는 알 길이 없으나 적어도 2천여년전, 이른 바 청동기시대부터는 문헌을 통한 기록이 비교적 자세하여 그 변천해 온 사실을 알기에 어렵지 않다. 서력 기원전 2세기 경 오늘날의 수원 및 화성땅은 한사군의 세력권 밖의 지역이었다.

진번(眞番)의 곁이 바로 진한땅이었다는 기록이 「사기」 조선전이나 「후한서」 동이전에 있는 사실로 보아 수원 및 화성땅은 애초에는 진한 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마한·진한·변한으로 갈라지고 마침내 이곳은 마한땅이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의 나라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 부족국가의 형태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한이 54국, 진한·변한이 각각 12국으로 모두 78개의 작은 부족국가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수원 및 화성땅은 모수국(수원시) 및 원양국·상외국(爰襄國·桑外國 : 화성군)으로 추정(推定)되고 있다.

1. 모수국(牟水國)－부족국가 시대

그러면 오늘날의 수원시에 추정되는 '모수국'(牟水國)이란 과연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인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모수국(牟水國)은 모수(牟水)와 국(國)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다.

국(國)은 '나라'라고는 하나 현재와 같은 개념을 지닌 '나라'라고는 할 수 없다. 아마도 부족국가 정도의 형태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모수(牟水)란 무슨 뜻인지가 문제다. 모수(牟水)란 글자의 뜻은 각각 '보리·물'이다. '보리'의 원래 뜻은 '벌'(原)로 추정되는 바이며, '물'(水)은 오늘의 뜻과 같은 '물'이다.

이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화성군 일대가 너른 벌판과 서해 바닷물의 침식으로 많은 늪(沼澤)지대를 지니고 있으므로 해서 이해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수원의 가장 오랜 이름인 '모수'의 뜻은 '벌·물'이라 볼 수 있으니 그것은 곧 오늘날의 '수원'의 뜻인 '물·벌'의 뜻과 같으며 다만 그 말의 순서가 뒤바뀌었을 뿐이다.

2. 매홀(買忽)－고구려시대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경덕왕 16년(757)에 행정구역을 크게 개편하였다. 수원은 원래

고구려의 '매홀군'(買忽郡)이었음을 「삼국사기」〈卷35地理志2〉에서도 알 수 있다.

'수성군본고구려매홀군경덕왕개명금수주(水城郡本高句麗買忽郡景德王改名今水州)'에서 '매홀'(買忽)은 무슨 뜻이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매'(買)가 천(川), 수(水), 정(井)으로 쓰여졌다.

따라서 川·水·井은 결국 모두 '물'(水)과 관계가 있다. 그렇다고 '매'(買)를 바로 '물'이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川·水·井은 각각 '내·물·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홀'(忽)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런데 이 '~忽'을 이제까지 학자들은 '~골'(谷)로 읽어온 바 있다. 지리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영남·호남지방에 '~벌'(火·夫里)이 많은 것에 비하여 북부지방에는 '~골'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買·忽은 미·골로 해독할 수 있겠는데 그 뜻은 물골(水谷) 즉 '물이 많은 골짜기' '물 많은 고을(邑)'의 뜻을 지닌 지명으로 추단된다.

수원의 매홀이란 뜻은 바닷가의 '물골'이 아닌 늪(沼)·호수(湖水)등이 많은 고장이란 뜻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수원에서 시작하여 화성군의 서해로 접한 발안·조암 등지에는 늪과 못(沼澤)이 많아 가히 '물골'이라 할만한 고장이라 하겠다.

3. 수성(水城)－통일신라시대

「삼국사기」(卷35)에 있는 기록으로

'수성군본고구려매홀군경덕왕개명금수주(水城郡本高句麗買忽郡景德王改名今水州)'

에서 수성(水城)이란 수원의 고명(古名)이 나타나니 '수성'(水城)이란 '水~'는 삼국시대의 '매홀'(買忽)의 '買~'가 '水~' 즉 '물~'의 뜻이었다는 좋은 방증이 된다 하겠다.

또 '수성'(水城)의 '~城'(잿·잣)은 지금으로부터 2백년전 정조가 쌓은 수원의 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옛부터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이름으로 통상 쓰이던 것이다.

'~城'의 기원은 외적을 막기 위하여 돌로 방책(防柵)을 쌓은 일로부터 시작되겠으나 지명에 나타나는 '~城'은 한 부족이 도시국가와 같은 작은 규모의 세력을 갖추고 한 성을 지탱해 나가던 고대의 국가 형태와 행정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4. 수주(水州) 고려시대

'수주'(水州)도 역시 「삼국사기」의

'수성군본고구려매홀군경덕왕개명금수주 (水城郡本高句麗買忽郡景德王改名今水州)'

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고려시대의 수원의 옛 이름(古名)이다.

'~州'*는 '고을'(邑)이란 뜻으로 현재도 전국의 행정구역명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5. 수원(水原)－조선시대

'수원'(水原)이란 지명은 조선 초기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구한말 때 수원군·수원면에서 수원읍으로, 또 현재는 수원시(1949년)로 쓰이는 도청소재지이다.

'~原'은 '벌판'의 의미를 지닌 지명접미사로 현재 시·군명 가운데도 많이 쓰이고

---

* 廣州, 楊州, 坡州, 原州, 清州, 忠州, 全州, 公州, 完州, 光州, 羅州, 慶州……

있다. 예를 들면, 철원(鐵原), 제원(堤原)·중원(中原)·청원(淸原)·천원(天原)·남원(南原)·창원(昌原) 등이 있다.

현재 쓰이는 시·군명 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명접미사는 州(22)·川(18)·城(16)·山(13)·原(8)이 있는데 수원은 이중 주·성·원을 모두 거친 지명이 된다.

수원은 커다란 강이 있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서해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고을도 아니다. 다만 황구지천·원천이 있어 진위천에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 들어갈 뿐이다. 그러나 수원 및 화성지역은 광주산맥이 동북쪽에서 막고 있을 뿐 거의가 질펀한 평야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서해의 침식을 받아 호수와 늪(沼)이 화성군 서부지방에 많다.

그리하여 고대 삼국시대로부터 지명이 물(水)과 관련을 맺고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매(買)·수(水)~'의 뜻을 지니고 계속해 왔다고 보인다.

또한 '買~'는 고대 지명에서도 「川·水·井」등 '물'과 관련있는 곳에 쓰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買~'는 수원·화성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사라진 지명용자이지만 현재 수원 및 화성군에서 쓰이고 있는 매향(梅香)·매교(梅橋)·매산(梅山)·매탄(梅灘)·매송(梅松)·매곡(梅谷)·매화(梅花)등의 '梅~'는 아무래도 '買(미)~'의 같은 소리(音)를 따서 표기한 지명인 것으로 추단된다.

제2장 수원시 동명의 유래

어떤 사물이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게 마련이다. 특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동리 이름에는 그 유래가 반드시 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오랜 세월로 인하여 잘못 전하거나, 때로는 아주 잊혀진 것도 없지 않다.

지명(地名)의 유래에 있어서도 거기에는 조상들의 역사와 생활과 사상까지도 담겨 있음은 물론이요, 언어나 사상이 그대로 숨쉬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수원은 1896년 13도제가 실시된 이래 화성(수원성)의 사대문(4大門)안을 남부면·북부면으로 설치한 이후 여러 차례 주위에 있는 수원군의 다른 면과 광주군·안양군 등 관하의 여러 마을이 수원시에 흡수되었다.

지난 1983년 2월 15일, 용인군 수지면 이의리 및 하리가 수원시에 편입되기까지 많은 개혁과 변천을 겪으며 오늘에 까지 발전해 온 것이다.

다음은 수원시 관하 행정동명·법정동명은 물론이고, 자연부락까지를 상세하게 조사한 총일람이다.

◇ 팔달동(八達洞)
- 팔달로(八達路)
- 남창동(南昌洞)
- 영동(榮洞)
- 중동(中洞)
  - 산루동(山樓洞)
  - 구천동(龜川洞)

◇ 남향동(南香洞)
- 남수동(南水洞)
- 매향동(梅香洞)
- 동창(東窓)부리

◇ 신안동(新安洞)
- 신풍동(新豊洞)
- 장안동(長安洞)
- 북수동(北水洞)
  - 군기동(軍器洞)

◇ 매교동(梅校洞)
- 매교동(梅橋洞)
  - 팽나무고개
- 교동(校洞)

◇ 매산동(梅山洞)
- 매산로

◇ 고등동(高等洞)

◇ 화서동(華西洞)
- 화산(花山)·꽃뫼
- 동리(東里)·동말
- 고양(高陽)골

◇ 파장동(芭長洞)
- 이목동(梨木洞)·배나무골
- 안죽골

◇ 율천동(栗川洞)
- 율전동(栗田洞)·윗밤밭
- 아랫밤밭
- 천천동(泉川洞)·샘내
- 점(店)터
- 미륵동(彌勒洞)
- 일림(逸林)·넘말

◇ 세류동(細柳洞)
- 세리(細里)
- 유천동(柳川洞)
- 버드내
- 샛터말
- 가는골(細路)
- 통리(通理)
- 신곡(新谷)·골장골

◇ 평동(坪洞)
- 벌말
- 버텃말
- 고색동(古索洞)
- 큰말
- 작은말
- 중보뜰
- 오목천동(梧木川洞)
- 뒷물
- 고사촌(庫舍村)·곳집말
- 건너말
- 평리동(坪里洞)

◇ 서둔동(西屯洞)
- 웃거리
- 벌터
- 구운동(九雲洞)
- 상구운(上九雲)
- 하구운(下九雲)
- 탑동(塔洞)·탑골
- 골말
- 새말

◇ 지　동(池洞)
- 못골

◇ 우만동(牛滿洞)
- 부채골
- 비치골
- 잡골

◇ 인계동(仁溪洞)
- 인도내
- 안터
- 새터

◇ 매탄동(梅灘洞)
- 산드레미
- 역말
- 궁말
- 안말
- 말통골

◇ 원천동(遠川洞)
- 먼내
- 라촌(羅村)말
- 새터

◇ 정자동(亭子洞)
- 족이정

◇ 영화동(迎華洞)
- 역(驛)말

◇ 송죽동(松竹洞)
- 솔대

◇ 조원동(棗園洞)·대추나무골
- 석산(石山)·돌미
- 금당골
- 독정께
- 새수막거리

◇ 연무동(鍊武洞)
- 뒷고개
- 상광교동(上光教洞)
- 윗말
- 용머리
- 하광교동(下光教洞)
- 불당골
- 문암(文岩)골
- 윗말
- 중간말
- 아랫말
- 건너말

◇ 곡선동(谷善洞)
- 곡반정동(谷半亭洞)
- 윗반정
- 아랫반정
- 궁말
- 명당(明堂)골
- 상고렴(上古簾)
- 하고렴(下古簾)
- 샛　말(間村)
- 새　말(新村)

- 권선동(勸善洞)
  - 상권선(上勸善)
  - 하권선(下勸善)
  - 온수(溫水)골
  - 용화출
  - 장지동(長芝洞)
  - 대황교통(大皇橋洞)

◇ 이의동(二儀洞)

- 쇠죽골
- 새말
- 의상(儀上)
- 의하(儀下)
- 산의실(山儀室)
- 안골
- 황새부리
- 동녘
- 구석
- 혜령골(시룽골)
- 상여천(上麗川)
- 하여천(下麗川)
- 금광
- 전나배기

- 하동(下洞)
  - 윗방축(퇴미)
  - 아랫방축

이상이 140여 수원시 지명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제는 찾을 길 없는 유래담이 대부분 이어서 그 마을을 왜, 어떤 동기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몇몇 지명의 유래를 간단하나마 다음에 정리하기로 한다.

◇ 팔달로

일제시대는 본정이라 하던 수원시의 중심지로 1·2·3가까지 있다.

◇ 남창동

역시 수원시의 중심지로 남부면 남창동(1912년)이었다가 수원면 남창리(1914년)이었던 번화가다.

◇ 구천동

남부면 구천동·수원면 산루면이었던 곳으로 거북산과 수원천이 있다고 해서 구천동이라 하다.

◇ 남수동

남쪽에 내(川)가 있다고 해서 남수동이라 한다. 남부면 남수동·수원면 남수리였었다.

◇ 매향동

수원성의 동북쪽 귀퉁이의 성 내를 말한다. 남부면 매향동·수원면 매향리였다.

◇ 신풍동

수원성내에 위치한 중심지로 북부면 신풍동·수원면 신풍리였다.

◇ 장안동

신풍동 곁 장안문(북문)께에 있으며 북부면 장안동·수원면 신풍리였다.

◇ 북수동

장안동 곁이며, 북부면 북수동·수원면 북수리였으며, 북수동 안에는 북부면 군기동(軍器洞)이었으며, 수원면 신풍리에 귀속되어 있던 군기동이 있다. 이곳은 무기를 보관하던 곳이라 한다.

◇ 교동

남부면 교동이었던 곳이다. 옛날에 향교가 있었던 곳이라 하며 지금은 매교동(梅橋洞)과 함께 매교동(梅校洞)에 통합되어 있다.

◇ 세리

남부면 세동·안용면 세리이던 곳으로 모두 비행장이 되었고, 그 주민들은 새로 신곡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현재는 세류동이란 동 명에만 그 자취가 남아 있다.

◇ 세류동 · 유천동 · 버드내

남부면 상류천 · 하류천이었으며, 다시 안용면 유천리에 안용면의 세리가 합해서 세류동이요, 유천은 고유어지명으로 '버드내'라 한다. 수원시의 남쪽 수원천변에 발달한 마을이다.

◇ 가는골(細谷)

마을이 '가는 골짜기'에 발달하여 그렇게 불렀다 한다.

◇ 통리(通里)

원래 안용면 황학리에 속하던 마을로 현재는 세류동 안에 있다.

◇ 평동 · 벌말·

남부면 평촌 · 안용면 평리라 하던 곳으로 수원시의 남서부로 고색 · 오목천 · 평리를 포괄하고 있다. 넓은 벌(논)이 질펀한 곳이라 옛부터 '벌말'이라 불러 왔다.

◇ 고색

용복면 고색리 · 안용면 고색리이던 곳으로 큰말 · 작은말 그리고 중보뜰(中洑坪)이 여기에 속한다.

◇ 오목천동

용보면 오목천 · 안용면 오목천리였던 곳으로 발안 · 조암과 남양 · 송산의 분기점이 되는 곳으로 오목천은 황구지천이나 그 지류를 뜻하는 듯, 혹 '머귀(나무)내'란 고유어를 잃은 것인지도 모른다.

◇ 고사촌 · 곳집말

용보면 고사촌 · 안용면 오목천리로 행정구역이 변해왔다. 옛날에 곡식을 보관하는 커다란 창고(곳집)가 있었다 한다. 곁에는 '뒷물'(뒷마을)이란 마을도 있다.

◇ 서둔동

북부면 둔동 · 일형면 서둔리라 했으니 선조 숙종때 군사가 이 곳에 주둔 했었다고 한다.

◇ 구운동 · 군들

형석면 상구운돌 · 하구운돌이 일형면 구운리로 바뀌었다. 구운돌은 '군돌'의 표기요, 돌(乭)은 결국 들(野)이 변한 음이다. 塔洞(탑골) · 谷村(골말)도 있다.

◇ 매산로

남부면 매산동 · 수원면 매산리로 남문과 수원역 사이를 이른다.

◇ 고등동

남부면 고등촌이 다시 일형면 고등리가 되었다. 팔달산 서쪽 기슭으로 '높은 지대'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화서동 · 꽃뫼(花山)

화서동 안에는 북부면 화산동 · 동리 · 고양동이었다가 일형면이 된 세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 가운데 꽃뫼(花山)는 병든 부친을 구완하다 몸을 지켜 자결한 노처녀가 죽어 꽃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미륵동

일용면 미륵동이 일형면 파장리가 되었는데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미륵불을 모신 미륵당이 지금도 있다.

◇ 일림 · 넘말

일용면 일림동에서 일형면 파장리로 행정구역이 바뀐 곳으로 등너머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넘말' 이라고 부른다.

◇ 이목동 · 배나무골

형석면 이목동에서 일형면 이목리라 하던 곳으로 배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배나무골'이라 부른다.

◇ 율전동 · 밤밭

형석면 상율전 · 하율전에서 일용면 율전리로 변했으며 우리말로는 '밤밭'이라 한다.

◇ 천천동 · 샘내

형석면 천천동에서 일형면 천천리로 바뀐 곳이다. 고유어로는 '샘내'라 지금도 부르고 있다.

◇ 점(店)터

형석면 점촌이라 하던 곳으로 옛날에는 점포들이 많아서 점터라 하던 곳이다.

◇ 족이정

일용면 정자동 · 일형면 정자리였던 곳으로 옛날에 '족이정'이란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 영화동

북부면 영화동이던 곳으로 이곳에는 역말(驛村)이 있었다고 한다.

◇ 송죽동 · 솔대

소나무와 대나무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일용면 송죽동에서 일형면 송죽리로 바뀐 마을이다.

◇ 조원동 · 대추나무골

일용면 조원동에서 일형면 조원리로 바뀌었으며 대추나무가 많아서 우리말로는 대추나무골이라 부른다.

'송죽'을 '솔대'라 하듯이 '조원'을 '대추나무골'이라 한다. 그러니까 송죽 · 조원은 솔대 · 대추나무골을 한자로 번역하여 표기한 것이라 하겠다.

◇ 돌미

북부면 석산동 · 일형면 석산동이 고유어로 '돌미'〈돌뫼〉라는 마을 이름으로 지금껏 남아 있다. 이외에도 금이 많이 나왔다는 '금당골', 독(甕)을 굽던 곳이 있었다는 '독정께', 비석이 있다고 해서 '새수막 거리'등이 아직도 마을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 광교동

원래 북부면 상광교동 · 하광교동이 일형면 상광교리 · 하광교리가 된 마을이다. 그 이름은 광주산맥이 달려오다 멈춘 광교산(582m)의 서쪽 기슭에 발달한 마을이라서 광교동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상 · 하광교동을 통틀어 보면 부처가 있었다 해서 '불당골', 옛날에 선비들이 그 바위 밑에서 가무를 즐겼다는 '문암골'을 비롯하여 윗말, 중간말, 아랫말, 건너말 등이 있다.

◇ 지동 · 못골

남부면 지동에서 태장면 지리(池里)였던 마을로 큰 연못이 있다고 해서 지동이라 했고, 고유어로는 '못골'이란 말이 지금도 쓰이고 있다.

◇ 우만동

수원성 동쪽에 있는 마을로 남부면 우만동에서 태장면 우만리가 되었으며, 동녘으로는 부채골, 비치골, 잡골 등 세 골짜기가 뻗어 있다.

◇ 인계동 · 인도내

남부면 인계에서 태장면 인계리로 바뀌었으니 인계동이란 고유어 '인도내'란 마을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인계동에는 안터, 새터등 자연부락이 있다.

◇ 매탄동 · 산드레미

매탄동은 원래 장주면 매탄에서 태장면 매탄리로 바뀐 곳이다. 여기에는 '산둘레'의

뜻을 지닌 산드레미, 역(驛馬)이 있었다는 역말, 이외에도 궁말, 안말, 말통골(章洲面 靈通) 등이 있다.

◇ 원천동 · 먼내

이곳은 장주면 원천이 태장면 원천리로 바뀐 곳으로 그 이름은 이의동으로 흘러오는 광교산 물을 받아 원천저수지가 되고 이 물이 수원의 동쪽 경계를 흐르는 냇물을 이룬다. 주민들은 흔히 '머내'라고 부른다.

◇ 원천동 · 라촌말

장주면 라촌이었다 태장면 라촌리로 바뀐 곳이다. '라촌'은 라씨가 그 마을에 많이 모여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천동에는 이외에도 새터(新基)라는 마을도 있다.

◇ 곡반정동

수원시 동남부에 위치한 마을로 안녕면 곡반정에서 안용면 곡반정리로 바뀌었다. 동명으로 보아서는 곡반정이란 정자(亭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찾을 길이 없다. 윗반정 · 아랫반정으로 나뉘며, 자리가 좋다는 '명당골', 물맛이 좋다는 상고렴(上古簾) · 하고렴(下古簾)이 있으며, 이외에도 궁말(宮村), 샛말(間村), 새말(新村)등이 있다.

◇ 권선동

장주면 권선리에서 태장면 권선리로 바뀐 곳으로 상권선과 하권선으로 나뉜다.

◇ 온수골

따뜻한 물이 나왔다는 '온수골'에는 현재는 더운 물이 나오는 곳은 없다. 그러나 당초에 이 마을을 온수골이라 하였다면 옛날에는 더운 물 나오는 곳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용화출

권선동에 있는 자그마한 고개가 하나 있는데 이 고개를 용화출이라 한다. 한자로는 용화출(龍化出)이라 쓰는데, 옛날에 이 고개에서 용이 나왔다고 한다.

◇ 장지동

남부면 장지동이 안용면 장지리로 바뀐 곳으로 바로 곁에 있는 지장동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 대황교동

정조가 융릉과 용주사를 행행(行幸)할 시에 이 다리를 건너 다녔다고 해서 대황교라 한다. 안녕면 대황교에서 안용면 대황교리로 바뀐 곳이다.

◇ 이의동(儀上+儀下→2儀洞)

의상 · 의하 두 마을을 합해서 이의동이라 한다. 용인군 수지면 이의리에서 1983년 2월 15일자로 수원시에 편입되었다. 이외에도 큰 전나무가 있다고 해서 전나배기를 비롯하여 이의동에는 쇠죽골, 새말, 안골, 황새부리, 산의실, 동녘, 구석, 금광, 상여천, 하여천이 있으며, 혜령골이 있는데 '혜령골'은 음이 변하여 '시령골' '시룡골' 이라고도 한다.

◇ 하동

용인군 수지면 하리이던 마을이다. 아랫방축 · 윗방축이 있으며, 윗방축은 일명 '퇴미'라고도 한다.

이상은 수원시의 동곡(洞谷)과 자연부락의 이름의 유래를 더듬어 본 것이다. 모든 법정동명이 그러하듯이 동명은 모두 한자로 되어 있으나 다행히 몇몇 자연부락에는 우리말로 된 마을 이름이 남아 있다.

버드내(柳川) · 가는골(細谷), 벌발, 곳집말(古舍村), 벌터, 꽃뫼(花山), 배나무골(梨木), 밤밭(栗田), 샘내(泉川), 넘말, 솔대(松竹), 대추나무골, 돌미(石山), 독정께, 못골(池洞), 인도내(仁溪), 산드레미, 먼내(遠川), 황새부리, 전나배기 등은 매우 아름다운 우리말이며, 또 역사와 전통이 스며 숨쉬고 있다고 하겠다.

여 백

제 4 편　행정구역의 변천

제 1 장　시대별 행정구역 제도

제 2 장　남부면, 북부면시대(1912년)

제 3 장　수원면 시대(1914년)

제 4 장　수원읍 시대(1931년)

제 5 장　수원시 시대(1949년)